

한지민 “조제’ 가슴 아리고 설렸다…성장통 겪게 한 작품”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리메이크

“한국적 색채 담아…배우로서 특별한 기회”

“조제”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리메이크한 영화 ‘조제’의 얼굴로 배우 한지민이 돌아왔다.

지난 1985년 발간된 작가 다나베 세이코의 소설이 원작이며, 2003년에 제작된 이누도 잇신 감독의 동명의 영화가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한지민은 지난 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담감보다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시작했다”며 “원작의 색깔을 가져오면서 김종관 감독님의 화법으로 그려낼 조제에 기대가 됐다”고 말했다.

“연인의 사랑과 이별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관계의 끝이 아닌 또 하나의 변화,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끌려서 선택하게 됐어요. 조제의 세계와 언어, 감정을 눈빛과 절제된 표현으로 전해야 했기에 어려웠지만, 그 과정은 배우로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업이었죠.”

“조제, 모험이자 새로운 도전…배우로서 특별한 기회”

‘조제’는 대학 졸업을 앞둔 ‘영석’이 우연히 자신을 ‘조제’로 불러 달라는 한 사람을 만나며 함께한 순간을 그린 영화다. 평범한 일상과 거리가 있는, 책으로 세상을 접하며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아온 조제가 영석과의 만남을 통해 남들과 같은 삶과 사랑을 고민하며 변화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한지민은 “한국적 색채를 담아 변화를 주려 했고, 리메이크이지만 우리만의 것을 담고 싶다고 감독님이 말했다”며 “저 역시 조제를 저

만의 것으로,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눈빛으로 말하는 조제 캐릭터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한지민은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밀그립만 있는 기분이었다”며 “매 신마다 감독님과 끊임없이 대화했다”고 떠올렸다.

“조제의 세계가 독특하고 몰입도가 생기는 지점이 있었는데 감정 지문이 많지 않다 보니 배우로서 채워야 할 부분이 많았죠. 모험이자 도전이었고,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배우에게 특별한 기회였죠. 이번 작품은 늘 털어내는 작업이었어요. 잘 표현하고 있는지 불안감도 있었지만, 빛과 음악으로 풍부하게 채워준 것 같아요.”

조제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울타리 같은 세상에, 영석은 천천히 들어온다. 한지민은 “마당에서 거실로, 요리하는 부엌, 조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창고와 결국 방까지 들어온다”고 말했다.

“많은 책으로 쌓인 조제의 방은 울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공간에 영석을 들었을 때 조제의 마음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을까 싶었죠. 처음 느끼는 낯선 감정에 밀어내려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영석의 손이 얼굴에 닿았을 때의 묘한 떨림과 낯설, 설렘 등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 내려 노력했죠.”

“겨울되면 생각나는 영화…남주혁, 꾸미없는 매력”

이누도 잇신 감독의 동명 영화는 20대 후반에 처음 봤다고 떠올렸다. 한지민은 “꾸미없는 조제만의 사랑스러움과 매력이 있었다.

온전히 영화에 몰입해 두 사람의 사랑에 공감하고 슬퍼했던 기억이 있다”며 “원작이 주는 여운이 강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한 번쯤 생각나는 멜로 영화로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한지민은 몸이 불편한 연기를 위해 다큐멘터리 등 영상을 찾아보고 움직임을 연습했다. “그분들의 삶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작업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익숙해 보이는 자세를 찾고자 했고, 그 뒤에는 집에 휠체어를 두고 계속 연습했어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힘이 들어가서 하반신에 힘을 빼는 게 가장 어려웠죠.”

부스스한 머리에 낮게 깔린 목소리, 낮은 옷차림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조제를 드러낸다. 그는 “조제가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건 닫힌 울타리 같은 것”이라며 “가진 피부 결이나 잡티는 만들었는데, 영석을 만나면서 조금씩 털어냈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감정이 변화된 느낌을 미세하게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영석 역의 남주혁과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한지민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연기의 결이나 열정을 이미 알고 있고, ‘눈이 부시게’에서 짧게 만난 아쉬움을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의사소통도 잘되고, 나이보다 성숙해요. 박학다식한 친구여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아요. 칭찬하고 싶은 건 꾸미없이, 맑고 투명하고, 숨기지 못하는 게 매력이자 앞으로는 잃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이죠.”

“할머니 떠나보내고 조제 떠올라…지금쯤 소중한”

한지민은 ‘조제’를 통해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제는 배우로서의 성장통이고, 또 짝은 후 인간으로서의 성장통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겪으면서 조제가 생각났어요. 조제처럼 지도를 잃어버린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 순간에 조제를 많이 떠올렸죠. 슬픔을 가족들과 나누고 위로하는데, 그것조차 표현하지 못했던 조제가 안쓰러웠고 그만큼 영석의 존재가 컸다고 생각했어요.”

조제와 영석처럼 가슴 아프고 시린 사랑도 해봤다고 답했다. 한지민은 “지나고 보니 저는 이별을 아파하고 겁내더라. 남녀 간 이별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다시 못 본다는 자체가 그 시간에 익숙해지는 데 느린 편”이라며 “이별의 시간이 아프지만 돌아서 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미소 지었다.

“아픔의 시간으로 좋았던 때를 잊고 싶지는 않아요. 이별을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마친 거죠.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요즘에 외롭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요즘 새롭게 느끼는 감정

을 마주하며 자신을 많이 비우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제’ 촬영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어 그 여운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모든 캐릭터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부시게’는 짧았지만 김해자 선생님과 함께해 의미 있고 애뜻한 작품이고, ‘봄밤’의 ‘이정인’은 당당하고 감정에 솔직한 달고 싶은 캐릭터죠. ‘미쓰백’은 강렬한 존재로 남아있어요.”

한지민의 현재 목표는 ‘늘 지금 여기를 살자’다. 그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집착을 많이 했던 성격이었어요. 그전에는 변화에 대한 겁도 두려움도 많았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없어진 후에 소중한 힘을 많이 느끼다 보니 지금은 즐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발라드세손’ 정승환, 새 겨울 싱글 ‘어김없이 이 거리에’

내일 음원 공개…멜로망스 정동환, 작곡·편곡 참여



‘발라드 세손’ 가수 정승환이 신곡을 발매한다.

6일 소속사 안테나에 따르면, 정승환은 오는 8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겨울 디지털 싱글 ‘어김없이 이 거리에’를 공개한다.

멜로망스 정동환이 작곡과 편곡에 참여했다.

작사가 심현보와 함께 정승환도 노랫말 작업에 힘을 보탰다.

안테나뮤직은 “‘어김없이 이 거리에’는 정승환이 들려주는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겨울 감성에 최적화된 노래”라면서 “정승환의 포근한 음색으로 울 한 해 지친 이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정승환은 차세대 발라더로 통한다. SBS TV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 시즌 4로 일곱을 알렸다.

지난 2016년 11월 발표한 데뷔앨범 타이틀곡 ‘이 바보야’를 비롯 ‘눈사람’, ‘십이월 이십오일의 고백’, ‘안녕, 겨울’ 등 주로 겨울 시즌에 곡을 선보여 인기를 누려왔다.

엔하이픈, 데뷔앨범으로 日 오리콘 정상

글로벌 돌풍 예견

신인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데뷔 앨범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6일 오리콘에 따르면, 엔하이픈이 지난달 30일 발매한 데뷔 앨범 ‘보더 : 데이 원(BORDER : DAY ONE)’은 4일 자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엔하이픈은 데뷔 앨범으로 일본 최대 음반 집계 사이트인 오리콘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로 직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엔하이픈의 글로벌 돌풍은 예견됐다.

예약 판매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선주문량 15만 장을 넘겼다. 3주 만에 선주문량 30만 장을 돌파했다. 실제로 엔하이픈은 앨범 발매 첫 날에만 총 22만9991장을 판매, 한터차트의 1일 자 일간 앨범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특히,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일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일 일본 라인 뮤직의 실시간 톱 100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본에서도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총 34개



국가 및 지역 톱5에 올랐다.

타이틀곡 ‘기븐-테이큰(Given-Taken)’은 17개 국가 및 지역의 ‘톱 송’ 차트에서 최상위 5위권에 안착했다.

‘보더 : 데이 원’은 서로 상반된 세계의 경계 위에 선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기븐-테이큰’은 팝 힙합(POP Hip hop) 장르의 곡으로, 긴 여정 끝에 생존을 확정하고 엔하이픈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이루게 된 일곱 멤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갖는 복잡한 감정과 강한 포부를 담았다.

한편, 엔하이픈은 이날 SBS TV ‘인기가요’와 ‘2020 엔트 아시아인 뮤직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MAMA)’에 출연한다.

김재중, 첫 온라인 콘서트 성료…“나중엔 직접 만났으면”

온라인 콘서트 ‘더 라스트 온-서트’ 통해 글로벌 팬들 만나

가수 김재중이 첫 온라인 단독 콘서트를 성료했다.

6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재중은 전날 오후 7시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콘서트 ‘더 라스트 온-서트(The Last On-Cert)’를 통해 글로벌 팬들을 만났다.

파워풀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9+1#’으로 본격적인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드라마 ‘사랑할’ OST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을 비롯 ‘지켜줄게’, ‘굿 모닝 나이트’ 등을 들려줬다.

양코르 무대로 ‘나우 이즈 굿(Now Is Good)’

도 선사했다.

김재중은 “오늘 온라인 콘서트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0년 우리 모두 힘들지만 기운내서 힘차게 잘 지내봅시다. 오늘 저도 여러분 덕분에 힘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콘서트로 힘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테스형’ 나훈아, 서울 콘서트도 취소

‘가랑’ 나훈아의 부산 콘서트에 이어 서울 콘서트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취소됐다.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는 4일 콘서트 티켓 예매 사이트 예스24를 통해 “18~20일 KSPO DOME(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나훈아 테스형의 정글북 콘서트’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객의 건강을 위해 현재 오픈돼 있는 공연을 부득이하게 취소했다”고 전했다. “추후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상황에 따라 좋은 공연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나훈아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됨

에 따라 오는 12~13일 벅스코에서 예정이던 부산 공연을 취소했다. 오는 25~27일 엑스코(EXCO)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 공연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예매자에게 티켓 배상을 보류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신곡 ‘테스형’으로 크게 주목받은 나훈아가 지난 추석 KBS 온택트 콘서트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다시 불러 일으키면서 이번 전국 투어는 예매 전쟁을 치렀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내년 비대면 개최

‘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내년 1월 9일과 10일에 열린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에 따르면 1월 9일에는 올해의 노래를 뽑는 디지털 음원 부문, 1월10일에는 올해의 앨범을 선정하는 음반 부문 시상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의 심사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발매한 음원과 음반이다. 전년도 심사 집계 마감 기간에 맞물려 평가에서 배제된 노래와 앨범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부문 후보는 음원 이용량과 음반 판매량 등 정량 평가로 뽑는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단 심사를 실시한다.

음원 차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며 34회 때 국내 대표 음원 유통사 관계자 및 가요 전문가 등 업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심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렸다. 이번에도 심사 비율 40%를 유지한다.

심사는 골든디스크 어워즈 집행위원회와 음원 유통사 관계자,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PD, 평론가 등 가요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이 맡는다. 이들은 음악적 성과, 사회문화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성 평가를 한다.

본상·대상·신인상 등 주요 부문 시상이 인기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온라인 투표 비율을 심사 기준에서 배제한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이번에도 인기상만 온라인 투표 점수를 반영한다.